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하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6:6-1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5월 5일	5월 12일
김주연	전주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23) 안식일의 주인

본문 : 눅6:1-5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율법은 필요 없는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조항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표적인 안식일 논쟁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세부조항들을 만들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지적합니다. 우선 그들이 논밭에 들어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비난한 것일까요? 아무리 합법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로 그들의 비난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말씀 자체 이신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본질을 꿰뚫어 그들에게 풀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살던 어느날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가 빵을 구하고, 빵이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때 사용하던 진설병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선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제사장은 당시 율법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거룩한 빵을 다윗과 일행에게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다윗과 제사장은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제사장은 율법을 어겨 거룩한 빵을 제사장이 아닌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다윗과 제사장은 모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제사장과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용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읽어 보지 못했다고 따지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문자 속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상 하나 이시며 참된 안식은 참된 생명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에 관심을 갖고 이땅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